

1907년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운동이 갖는 성격 *

— 신학적 성찰 —

김영한 **

- I. 머리말
- II. 한국교회의 정체성 형성 : 한국교회의 중생
- III. 회개 운동
- IV. 말씀 중심 운동
- V. 성령의 운동
- VI. 윤리적 갱신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운동 - 민족주의 고취,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
- VII. 영적인 구국운동 : 비정치화가 아닌 영적 갱신을 통한 구국
- VIII. 진정한 에큐메니칼 운동 : 화해와 평화운동
- IX. 맺는말 : 한국교회의 순수한 영적 본질 : 출생순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I. 머리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하나님 말씀공부와 기도를 통한 회개로 특

* 본 논문은 한국기독교철학회 논문집, 2007년 6월 출판된 기독교철학 4호(11-48쪽)에 게재되었음.

**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장 · 한국기독교철학회장

정되는 성령에 의한 영적 각성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죄에 대한 회개, 성결한 삶, 복음전도, 구국운동을 특징으로 하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였다. 이 운동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 운동은 원산에서 1903년에 일어난 영적 각성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의 사경회에서 절정을 이룬 것이다. 이것은 1909년 백만 구령운동으로 이어진다. 1907년 영적 대각성운동의 원동력은 기도회와 사경회(성경공부모임)를 통한 성령체험이었다. 1907년 영적 대각성운동은 오늘날 복음주의적 한국교회의 영적 산실이라는 측면을 갖는다.

본 논문은 1907년 영적 대각성운동이 갖는 성격에 관하여 신학적으로 성찰해보고자 한다. 이 영적 각성운동을 1. 한국교회의 정체성 형성, 2. 회개운동, 3. 말씀중심 운동, 4. 성령의 운동, 5. 윤리적 갱신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운동, 6. 비정치화 현상이 아닌 영적 갱신을 통한 구국운동, 7. 진정한 에큐메니칼 운동: 화해와 평화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논구해보고자 한다.

II. 한국교회의 정체성 형성 : 한국교회의 증생

1903년의 감리교 선교사 하디(Robert A. Hardie)의 성령체험은 실질적으로 1907년 영적 대각성운동의 기원이었다. 원산에서의 선교활동의 부진과 실패로 심한 절망에 빠진 하디가 원산 여선교사들(감리교의 하이트 Mary Culler White 등과 캐나다 장로교의 매컬리(Louise Hoard McCully)의 한 주간 기도회와 성경공부에 강사로 초빙되어 가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회개의 체험을 한 것이다.¹⁾ 하디가 이끈 사경회는

1) Alfred W. Watson, Church Growth in Korea(New York: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1934), 29; Allen D. Clark,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Seoul, Korea: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71), 159.

신학적인 강연이나 설교가 아니라 성경공부와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모임이었다. 초기의 한국선교사인 장로교의 언더우드와 감리교의 아펜젤러 등은 미국에서 제2차 대각성의 영향을 받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원산의 영적 각성운동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²⁾ 이 운동은 송도(인천)와 서울, 목포 등지로 파급되어 평양에서 1907년에 절정을 이루고, 평양의 불길이 다시 서울, 서천, 대구, 원산, 함흥 등지로 퍼져나가 전국적으로 일어난 각성운동이었다. 1907년 1월 12일 장대현교회에서 개최된 장로교 및 감리교 연합 사경회에서 방위량(W. N. Blair)선교사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본문으로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라는 것을 설교했다. 그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우치려고 하였다. 사경회 마지막 날인 1월 14일 월요일 이길함(Graham Lee)선교사가 설교했다.

이 마지막 날 회중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 잡혀 죄의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길함 선교사가 기도에서 “나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하자마자 어떤 외부적인 힘이 회중을 사로잡았다. 각 사람들이 각자 일어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고, 어떤 이들은 죄책으로 인한 괴로움 때문에 주먹을 움켜쥐고 머리를 땅에 짚기도 하였다. 저녁 8시부터 아침 5시까지 죄의 고백이 지속되었다. 선교사들은 이들의 엄청난 죄의 고백을 들으며, 성령의 권능적 강림에 놀라기도 하였다. 다음 날에 선교사들은 거룩한 말씀으로 이들의 상처를 싸매고 위로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괴로움과 죄에 대한 고백이 여러 날 지속되었다.³⁾ 방위량 선교사는 이러한 영적 각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혼란도 없이 영과 혼의 굉장한 조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는 영혼들의 교제였다. 그 기도 소리는 마치 거대한 폭포수 같았고, 거대한 기도의 물결은 하나님의 보좌

2) 김흥기, “Again 1907, 한국교회의 갱신과 부흥”, 2006 서울 성령복음화 대회 자료집 : 주재 : Again 1907, 성령이시여, 생명과 평화를 주소서!, 주최 : 2007 포럼, 2006. 1월, 69.

3) George L.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357-358.

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였다.”⁴⁾ 그리하여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 되었고, 평양신학교는 한국 정통보수신학의 본거지가 되었다. 이 운동은 순수 종교적이고, 신앙운동이었고, 그 안에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애국운동이었다. 개인의 회개가 사회의 각성과 개혁으로 이어졌다. 한국교회는 이 운동을 통해서 회개, 중생, 성결을 경험하는 결정적 사건을 체험하였다. 한국의 재래종교로 자리 잡은 유교나 불교나 선(仙)교나 무속종교에서는 회개가 없다. 기독교는 1907년의 영적 대각성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독교가 재래종교와 다른 독특한 위상을 자리 잡았다. 불교에서 기도란 인격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득도(得道)하기 위한 것이다.

1906년 평양에서 1주일간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의 연합기도회가 열렸는데,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하디 선교사가 “요한일서”를 본문으로 인도하였다. 하디 선교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달려 있으며, 그 거룩한 교제는 사랑과 정의에 기초한 것임”⁵⁾을 강조하였다. 하디가 인도한 성경공부는 참석한 선교사들에게 영적 감동을 주었다. 이때 장로교 이길함(Graham Lee) 선교사도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 “선교사들이 성신의 감동함을 수(受)하여야 각기 죄를 자복하였고, 그 중에 특별히 이길함 선교사가 성신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1906년 하디의 평양 집회는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⁶⁾ 원산 집회 이후 송도(인천)와 서울 등지에서도 영적 각성운동이 연이어 일어났다.

평양 대각성운동은 이처럼 연이어 일어난 영적 각성운동의 절정을 이룬 사건이었다. 블레어(Blair)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 “우리는 하나님

4) W. N. Blair, *The Korean Pentecost* (New York, 1908), 45.

5) William N. Blair, “The Korea Pentecost and Other Experience”, *The Korean Pentecost and The Sufferings Which Followed, The Banner of Truth Trust, Edinburgh, 1977*, 66.

6) 이덕주, ‘로버트 하디 선교사와 회개 운동’, 한국교회와 회개운동, 한국복음주의 협의회 10월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 2006년 10월 13일, 강변교회, 자료집 15.

의 임재가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어 은혜의 한 주간을 허락하신 것이다.”⁷⁾

1907년의 영적 대각성운동은 원산에서 시작하고 송도, 서울 등에서 연이어 일어나 평양에서 절정에 도달하였고, 다시 선천, 원산, 함흥, 서울, 대구, 목포 등지로 번져나갔다. 따라서 1907년 회개와 대부흥운동은 원산에서 시작하여 평양에서 절정에 도달하여 전국규모로 퍼져나간 영적 각성운동이었던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1907년 영적 대각성운동은 기독교가 재래종교인 유교나 불교나 선(仙)교와 달리 기복종교가 아니라 참 종교라는 체험을 심어주었다. 원산과 평양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 신자들은 회개와 중생과 성결을 체험함으로써 기독교의 본질 체험에 접하였고,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것은 한국의 기독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당시의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인 블레어는 이 각성 운동을 “오순절 성령사건”에 비유하였다.⁸⁾ 당시 선교사들은 이 각성운동을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as a great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church)⁹⁾이라고 평가하였다. 선교사 크램(W. G. Cram)도 영적 각성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한국교회의 성격(character)을 갖추게 하셨다”¹⁰⁾고 증언하고 있다. 해리스 감독(Bishop M. C. Harris)도 이 각성운동을 “하나님이 한국 땅에서 기독교회를 처음 설립한 사건”¹¹⁾이라고 평가하였다.

7) William N. Blair, “The Korea Pentecost and Other Experiences”, 66-67.

8) W. N. Blair & B. Hunt, The Korean Pentecost and the Sufferings,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7, 71.

9) W. B. Hunt, “Impression of an Eye Witness”, KMF (1907. 3).

10) W. G. Gram, “The Revival in Songdo”, KMF (1906. 4).

11) M. C. Harris, Preface: Underwood, The Call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1908, 6.

Ⅲ. 회개 운동

영적 대각성운동은 감리교 선교사인 토마스 하디(Robert A. Hardie, 1865-1949)의 회개에서 비롯되었다.

1.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 운동”(Downward movement)¹²⁾ : 목회자의 회개운동

하디 선교사는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선교열매의 곁여는 바로 자신의 영적 나태라는 자각에 이르렀다. 하디의 회개는 단순한 체면을 지키는 겸손의 회개가 아니라, “고통스럽고 창피한” 결단이였다. 그는 먼저 “교만하고 주민을 무시한”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였다. 선교의 열매가 없어 영적 무력을 경험하면서 선교를 포기하려고까지 한 그가 수양회 강사로 가서 설교하는 가운데서 스스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다.

1903년 8월 선교사 연합기도회에서 ‘성령 충만’ 은혜를 체험한 하디는 기도회 직후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원산교회의 한국교인들 앞에 섰다. 그리고 회중 앞에서 자신의 “교만했던 것과 고집불통이었던 것과 믿음 없었음”을 자백하였다. 1894년 중일전쟁 이후 서북지역 주민들은 교회나 선교사 주거지역에 피신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다. 이것이 선교사들에게는 백인의 우월감과 자만심을 갖도록 한 것이다. 선교사들은 개인주택과 화려한 가정용품과 피서지까지 갖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인들 가운데 선교사들의 겸허한 이미지가 사라지도록 하기 시작하였다.¹³⁾ 선교사가 토

12) 이덕주, “로버트 하디 선교사와 회개 운동,” 한국교회와 회개운동, 한국복음주의 협의회 10월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 2006년 10월 13일, 강변교회, 자료집, 18.

13) 한국기독교사연구회편, 한국 기독교의 역사, 서울 ; 기독교문사, 1989, 268-269, 조은식, 한국교회의 1907년 대부흥과 1970년대 교회성장 비교, 선교신학, 제 12집, vol. 1/ 2006, 48.

착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괴롭고 창피한”(painful and humiliating) 일이었다.¹⁴⁾ 그러나 하디는 성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였다. 하디가 잘못을 고백하자 한국교인들 중에서도 선교사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속였던 잘못을 자백하는 이들이 나왔다.

하디는 나중에 그의 영적 체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함을 깨달은 후 그 첫 주일 아침 우리 원산 감리교회 회중 앞에 서서 부끄럽고 당황한 얼굴로 나의 교만, 심령의 강박함, 그리고 믿음의 결핍과 또한 이것들이 가져다준 결과들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처음으로 죄의 확신과 회개가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다.”¹⁵⁾

이러한 지도자의 회개는 평양 영적각성운동에서도 길선주를 비롯하여 심지어 선교사들에게도 일어났다.

2. 자백운동

1903년에 일어난 원산 선교사 연합기도회에서 선교사의 회개운동에 힘입어 한국인 신자들 사이에 자백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신학교 졸업반이요 장대현교회 장로였던 길선주는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다. 사경회의 마지막 날인 1월 15일 밤 길선주는 두 가지 죄를 고백하였다: 형제에 대하여 질투하고, 블레어

14) 이덕주, ‘로버트 하디 선교사와 회개 운동’, 한국교회와 회개운동, 한국복음주의 협의회 10월 초찬기도회 및 발표회, 2006년 10월 13일, 강변교회, 자료집 2.

15) Minute of the Seventh Annual Meeting, Korea Mission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04, 23, 25.

(Blair) 선교사를 증오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였다. 그의 아들 길진경의 상황기록은 다음과 같다: “우리와 몇몇 선교사들은 길씨와 주씨 두 사람을 위하여 특별기도를 했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에서 회개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길씨가 일어나 자신은 형제들을 질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방위량(W. N. Blair)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음을 회개한다고 하며, 보기에다 비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굴렀다.”¹⁶⁾

보통 사람이면 형제를 질시하고 미워하는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길선주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현장에서 바늘 끝 같은 작은 죄라도 참회의 대상으로 보게 된 것이다. 질시나 미움 그 자체는 별 것이 아닐지 몰라도 산상수훈의 주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살인과 다름이 없다 (마5:21)

길선주 장로의 자백에 이어 다른 교인들의 자백이 이어졌다: “한 교인이 또 일어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음란과 증오, 특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온갖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기도하면서 스스로 억제할 수 없도록 울었고, 온 회중도 따라 울었다.”¹⁷⁾

자백된 죄의 종류는 다양하였다. 마음에 담겨있던 죄(미움, 시기, 질투, 증오심, 양심, 심술, 교만), 밖으로 드러난 악한 행위(거짓말, 눈속임, 사기행각, 술-, 담배-, 도박-, 마약탐닉), 신앙인으로써 삼가야 할 직업(주막집), 첩살이, 형사 처벌 받을 죄(절도, 강도, 간통, 방화, 살인) 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백되었다.

1907년 1월 15일자 맥쿤 선교사는 브라운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

16) 길진경, 영계(靈溪) 길선주((吉善宙), 서울 종로서적, 1980, 192.

17) 길진경, 상계서, 192.

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 “몇 사람은 믿기 전에 자기 친구를 살해했음을 고백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조리 범했음을 고백했으며, 교회직원들이 도둑질했음을 고백했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질투와 미움도 고백했습니다.”¹⁸⁾ 죄를 자백한 사람들도 남녀노소, 선교사들 및 교회지도자들, 집회인도자와 참석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백(自白)하였다. 1월 16일 장대현교회 수요기도회에서 주공삼 장로가 자신이 저지른 공금횡령과 간음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였다.¹⁹⁾

당시 친일파였던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 조지 래드(George T. Ladd)는 1907년 여름에 평양을 방문하고 이러한 영적 대각성운동의 현장을 목격한 후에 혹평했는데, 영적 대각성운동은 한국인의 비정상적인 심리적 성품(abnormal psychological character), 즉 일종의 집단 심리적 현상에서 나온 그런 것이 아니었다.²⁰⁾ 또한 북장로교 선교부 총무 아더 브라운(Arthur J. Brown)이 당시 혹평한 바와 같이 축사(逐邪)과정에서 나타나는 “외침, 절교, 통회, 바닥에 쓰러짐, 입에서 거품을 품음, 의식을 상실할 정도로 감정의 격발” 등의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현상들”²¹⁾이 아니었다. 반대로 맥퀸 등 한국선교사들은 이러한 신자들의 회개운동이나 단순히 감정표출이나 감정적 격정에서 나온 탄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였다.²²⁾

1907년 이전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참다운 회개 없이 기독교 신앙을 수

18) George McCune, Letter to Dr. Braun (Jan,15, 1907).

19) William Blair & Bruce Hunt, The Korean Pentecost and the Sufferings which followed, 김태근 옮김 한국의 오순절과 그 후의 박해,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5, 88.

20) George T. Ladd, In Korea with Marquis Ito (New York : Charles Scriber's Sons, 1908), 411.

21) Arthur J. Brown, The Mastery of the Far East (New York : Charles Scriber's Sons, 1919), 543-544.

22) George S. McCune, “The Holy Spirit in Pyeng Yang” (January 1907), 1.

용하였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하나의 서구종교로서 개화의 수단으로 수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자가 죄인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회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3. 배상운동으로 나타난 운동

죄책고백운동은 사회적으로 그 열매를 맺었다. 재정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힌 사람들은 손해를 보상하고 사과하는 일이 생겨났다.²³⁾ 당시에는 아들을 낳기 위하여 축첩하고 노비를 갖는 것이 사회의 관행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한 후에 이에 대한 배상행위에 나섰다. 축첩한 교인들이 회개하고 첩을 돌려보내었다. 그리고 천 냥이나 주고 노비를 부렸던 양반이 노비가 보는 앞에서 노비문서를 태워 소각하고, 노비를 수양딸로 삼는 일이 일어났다.

당시 한국선교사 광안전은 다음과 같이 보고 한다 :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구별 없이 자신이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을 해주었기에 성안에 소문이 자자했다.” 실제로 회개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물건처럼 매매함이 죄인 줄 깨닫고 자기가 부리던 종의 문서를 불살라 버리고 그를 해방 시켜주었다.²⁴⁾ 또 어떤 사람은 첩과의 관계를 청산하기도 하였다.²⁵⁾ 이 영적 대각성운동은 말씀을 통한 회개와 기도운동으로 실생활의 회심을 가져온 영적이며 도덕적 갱신운동이었다. 이처럼 선한 행동으로 나타난 회개운동은 교인수를 괄목할 만하게 증가시켰다. 장로교인수는 1907년 한 해 동안 34%나 증가하고, 감리교인수는 118%나 증가하였다. 기독교학교도 많은 영향을 받아 1906년 208개가 1907년에는 344개가 되

23) 한국기독교사연구회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1, 271-272.

24) 로병선, “강화사경회정형”, 신학월보, 제 5권 2호, 1907, 82.

25) 박용규, 평양대 부흥운동, (서울 : 생명의 말씀사, 2000), 334-5.

어 136개나 증가되었다.²⁶⁾

IV. 말씀 중심 운동

원산 부흥운동은 말씀을 사모하고 공부하는 사경회였다. 하디는 여태까지 실패한 선교사로 좌절과 절망 중에 있던 중 남감리교 소속 중국선교사 하이트(Mary C. White)와 매컬리(L. H. McCully)가 원산에 와서 원산지역 선교사 연합사경회에서 요한일서를 강해하다가 피동적으로 성령을 체험하였다. 하디 자신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 “지난 달 우리 선교부 소속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원산을 방문한 선교사의 부탁으로 한 주간 성경공부를 하였는데,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약속하신 바를 얻었습니다.’”²⁷⁾ 당시 하이트 선교사와 함께 원산을 방문해서 사경회를 시작했던 하운셸(J. Hounshell)의 증언이다: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한 주간은 참으로 풍성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것을 꺼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²⁸⁾

초창기의 영적 각성운동은 한국교회 선교사가 시작한 두 주간의 사경회(Bible Class, 혹은 Training Class) 기간에 일어났다. 사경회에서는 신구약성경 각 권을 체계적으로 가르쳤다. 사경회는 지식전달이 아니라 신앙경건의 훈련으로 여겼다. 참석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경의 내용

26) 김인수, 1907년 대부흥운동, 교육 교회, 96/5 통권 236호,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 연구원, 53.

27) R. A. Hardie, “Medical Report”, Annual Report of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3, 26.

28) J. Hounshell, “Report of Miss Hounshell”, Annual Report of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03, 57.

을 터득하고, 신앙의 진리를 깨닫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1903년의 [신학월보]는 사경회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

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와 감격 속에서 진리에 관하여 많은 것을 더 배우고 싶은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2.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경 배우기를 통해 예수의 명(命)을 찾고자 했다.

3. 이전에는 성경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많이 보급되어서 누구든 쉽게 원하는 대로 구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다.²⁹⁾ 사경회의 특징은 지식전달에 머물지 않는 신앙경건 훈련이었다. 참석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의 진리를 깨닫고 일상의 삶 속에서 진리대로 살기를 노력하는바 삶의 변화와 전도를 실천하였다.

1907년 1월의 영적 대각성운동은 1903년에 일어난 원산연합집회(장로교, 감리교, 침례교)의 성령임재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고, 1906년 8월 평양에서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의 성경공부와 집회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이다. 여기에 원산에서 은혜를 체험한 하디가 초청되었다. 그는 신약성경 요한 1서를 강해하였다. 1907년 1월 모임은 겨울 남자 사경회였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모임이었다.

영적 대각성운동은 사경회 기간에 일어났다. 사경회는 낮에는 성경공부를 하였고, 저녁에는 신앙각성 부흥집회를 가졌다. 사경회는 대개 2주일간 지속되었고, 당시 평양 장대현교회의 사경회는 2천 여명이 모였다. 길선주 장로는 1907년의 영적 대각성운동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그는

29) 신학월보 3권 5호, 1903년 5월 : 204-205.

평양신학교 제 1회 졸업생으로 목사가 되어서 평양 장대현교회를 목회하면서 말세학을 저술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전국교회를 순회하면서 종말론 사경회를 인도하였다.

V. 성령의 운동

1. 원산집회의 성령역사

원산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하디 선교사는 그의 선교활동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을 따른 것을 회개하였다. 그는 여태까지의 실망과 좌절의 선교에서 벗어나 희망과 감사의 선교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1904년 선교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지난해 보고서를 내면서, ‘내가 이 일을 증거하였고, 성령께서도 증거하시도다’는 구절을 삽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쓰면서도, 정말 네가 쓴 것이냐?’ 라고 자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민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셨고, 은사를 주셨으며, 무엇보다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³⁰⁾

당시 하디의 은혜 체험은 1903년 8월 23일-30일 까지 1주간 원산 산제동에 있었던 남감리교 선교부에서 원산지역 선교사 연합성경공부 및 기도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은 일에서 연유한다. 당시 여선교사들이 주도하고 인도한 사경회에서 하디는 선교업적의 부진으로 인한 ‘영적 절망 상

30) R. A. Hardie, “Medical Report”, Annual Report of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04, 23.

태’에서 피동적으로 기도회에 임하였다. 그런 하디가 성경공부 인도 중 “성령임재”를 체험한 것이다. 그것은 영국의 웨슬리가 런던 올드게이트가에서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는 것을 듣는 가운데 받은 성령의 임재와 회심의 체험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다.

다음은 하디의 증언이다: “지난 달 우리 선교부 소속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원산을 방문한 선교사의 부탁으로 한 주간 동안 성경공부를 하였는데,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약속하는 바를 얻었습니다.’”³¹⁾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처럼 수고의 결과가 없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니, 내 자신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깨닫게 된 것은 내게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숙4:6)고 하신 말씀에 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이 사업실패의 원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³²⁾

1906년 8월에 있었던 하디가 인도한 사경회는 1907년 1월 대각성운동의 시발점이었다. 블레어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집회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은 가슴을 찢고 눈물로 자복하는 고백이 없이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8월 집회를 마친 후 우리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강하신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는 우리뿐 아니라 고난의 시간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인 형제들에게 살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³³⁾

31) R. A. Hardie, “R. A. Hardie’s Report,” Annual Report of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03, 26.

32) 상동.

2. 평양 장대현교회에서의 성령역사

1906년 10월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며칠 동안 저녁집회가 열렸다. 여기에 미국 뉴욕에서 온 존스톤(Howard Agnew Johnston)목사가 최근에 인도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보고하였다.³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회중을 향해 “성령 받기 원하는 사람은 일어나시오”라고 외치자 길선주 장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이후에 평양의 신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날마다 한 시간씩”(one hour each day)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선교사들도 같이 기도하였다. 이 기도회는 1907년 1월 겨울 남자 도(道)사경회(查經會)까지 이어졌다.

여기서 보면 1907년의 평양 장대현교회의 영적 대각성운동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1906년 8월부터 교회 지도자인 선교사들의 준비가 있었고, 그리고 10월부터는 신자들이 성령강림을 대망하는 지속적인 기도모임이 결실인 것을 알 수 있다.

1907년 1월 첫 주간 토요일 집회에 선교사 블레어(Blair)가 고전12장 27절에 근거하여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인끼리 서로 증오하게 되면 온 교회가 고통스럽게 된다고 실제로 사고로 절단된 자기 손가락을 내 보이며 이 손가락을 다쳤을 때, 온 몸이 얼마나 아팠고 고통스러웠는지를 간증하였다. 이 설교를 들은 몇몇 청중들은 지은 죄를 고백하였다. 다음날 주일 낮에는 길선주 장로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 잡혀서 설교하면서 인간 죄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얽매고 있는지를 몸짓으로 설명하였다. 이 설교에 다수의 청중들이 죄를 뉘우치며 고백하였다. 이 가운데 몇몇은 마룻바닥에 뒹굴고 울면서 죄를 고백하였다. 월요일 저녁

33) William N. Blair, “The Korea Pentecost and Other Experiences”, 66-67.

34) 임희국, “신앙각성운동을 통한 갱신과 부흥, 토착교회의 형성”, 2005년도 제 2회 소망신학 포럼, 자료집, 2005년 4월 20일,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7.

에는 이길함(Graham Lee)이 집회를 인도하였다. 집회 후에 약 600명 정도가 남아서 기도회를 시작하였다.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폭포수처럼 우렁찼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파도소리처럼 들렸다. 통성기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회중들은 지은 죄를 깨닫기 시작하였고,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였다.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였다. 선교사 블레어와 이길함의 한국인 요리사는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용서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지요?” 라고 울부짖으면서 바닥에 뒹굴어져서 죄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또 울었다. 기도회는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무질서한 열광주의에 빠지지 않았다.

3. 평양 네 교회에서의 성령역사

네 곳(사창골교회, 산정현교회, 남문밖교회, 서문밖교회)으로 분산되어 모였던 여성들의 저녁집회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토요일 저녁에 성령이 큰 능력으로 임하여서 이제까지 선교사들의 속을 썩이며, 말썽을 부리던 한 소녀가 크게 소리 내어 울며 지은 죄를 뉘우쳤다. 그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에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여성 회중들이 큰 기쁨 속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평양 사경회는 화요일 밤 집회로 끝났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죄 고백 사건은 평양의 여러 초등학교에서도 일어났다. 수요일 오전에 승의여학교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오전 10시 정규 예배시간에 예배를 드리던 여학생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여 예배가 제 시간에 마칠 수 없어 죄 고백 기도회가 12시까지 지속되었다. 수요일 승실중학교 예배시간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학생들이 울면서 죄 고백하므로 예배가 1시까지 지속되었다.

서북지역에서 일어난 성령운동에 대하여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총무

아서 브라운(A. J. Brown)은 그 특징이 아우성, 신음, 격렬한 통곡, 마룻바닥에 뒹굴기, 입에 거품 물기, 발작과 경련, 무의식 상태에 이르는 등의 신체적 정상을 동반하였다고 보고 한다.³⁵⁾ [조선예수교 장로회 사기(史記)](1928년 발간)에 의하면 평양의 여러 교회에서 특별집회가 한 달 이상 지속되었다. 이 기간에 수 천명이 “중생의 성신세례”를 받았다. 길선주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큰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³⁶⁾

당시 한국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인 평양 남산현 감리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감리교 노블(W. A. Noble)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한국교회에 나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의 현시가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나타나심은 없었을 것이다.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교회전체와 때로는 밖에까지 임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쓰러지고 의식을 잃었다. 전 도시는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고 있는 듯했다.”³⁷⁾

대부흥 집회의 현장에 있었던 스왈론(W. L. Swallon) 선교사는 집회가 끝난 후 1907년 1월 18일자 브라운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월요일 밤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 성령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현시하셨다.…… 사악하고 수치스러운 모든 죄들이 아주 깊은 죄의식 하에 고백되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는 마치 가장 무시무시한 고통에 처한 것처럼 갑자기 무섭게 통회하고 애통하기 시작했다.”³⁸⁾

35) The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 of the Prebyterian Church in the USA, 1907, 282.

36) 임희국, “신앙각성운동을 통한 갱신과 부흥, 토착교회의 형성”, 2005년 소망신학 포럼, 주제 :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과 리더십, 2005년 4월 20일,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11.

37) Korea Mission Field III:3 (March 1907): 43.

38) W. L. Swallon, Letter to Dr. Brown, Jan. 18, 1907.

4. 숭실대학에 일어난 성령운동

당시 숭실대학은 성령의 역사를 전국적으로 전하는 데 중요한 매체의 역할을 하였다. 숭실대학과 숭실중학 학생들은 수업을 중단하면서까지 사경회와 기도회에 참석했다. 그들은 매주 일요일에 그룹을 지어 평양 시내와 인근 촌락을 다니면서 전도운동을 전개했다. 숭실대학 학생들 가운데는 이미 학교 개강 이전 1월에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사경회 저녁 집회 때 무시무시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령의 불을 경험”한 이들도 있었다. 장대현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그 후에도 평양 전역으로, 다시 평양에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기 개강이 되자 “학생들이 일반 교인들보다도 더 쉽게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그 결과 “방학을 끝내고 돌아온 대학생과 중학생들이 성령의 부어 주심을 공유하였던 것이다.”

북감리교 선교사 베커의 보고에 의하면, 1907년 2월 숭실대학이 개학하자 성경 사경회에서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같은 “은혜가 학교에도 내리기를 원하는” 움직임이 교수들 가운데 있었다. 성령의 역사를 고대하는 학생들과 선교사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수업 중에 가진 그 기도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그 교실은 통회의 외침과 흐느낌으로 가득 찼고, 그것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죄의식으로 압도되고 전율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성령의 역사가 학생들 가운데 너무 강하게 나타나 심지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들까지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였다.”

1907년 6월 선교사 베커는 숭실학교에 임했던 오순절의 역사를 이렇게 보고하였다 :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너무 분명하여 심지어 회의적이고

비웃던 이들조차도 죄를 통회하고 애통하였다. 나는 한번은 여러 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기다리다 시간이 너무 늦고 집회가 끝나는 바람에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억지로 돌아가야 하는 30명 이상의 학생들을 헤아린 적도 있었다. 우리는 시간을 지킬 수 없었다. 집회가 끝났다고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생들은 애통하고 절규하면서 ‘제발 제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온종일 집회를 가졌지만 학생들이 자정이 되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따라오며 자신들과 함께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우리에게 간청하는 때도 있었다. 학생들의 약 10분의 9가 이때에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았고,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였다.”³⁹⁾

VI. 윤리적 갱신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운동 - 민족주의 고취,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

1907년의 영적 각성운동은 먼저 선교사가 변화하였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변화하였고, 교회 신자들이 변화하였다. 이들의 변화된 삶이 일반 사회에도 영향을 끼쳐 한국사회가 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초기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운동은 종교적 회개에서 시작하여 윤리적 갱신으로 결실을 맺었다. 축첩, 도박, 음주, 흡연, 노예소유를 회개하고 폐기하는 갱신운동이 일어났다. 어느 여성도는 청일전쟁 때 폭격을 피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가다가 버린 죄를 회개하였다. 선교사를 미워한 죄를 통회 자복하였다. 남녀 좌석의 휘장이 걷히고,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노비를 수양딸로 삼는 혁명적 운동이 일어났다.

39) <http://www.1907reviv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 [평양대부흥]평양 숭실대 학생 10분의 9가 성령체험(1907년 2월), 평양숭실학교에 입한 부흥, 2007년 03월 20일 (화) 14:58:55 박용규.

장대현 장로교회의 전신인 널다리교회 최치량의 행적은 예수 믿은 사람의 도덕적 삶이 갱신되는 대표적 예이다. 그는 평양에서 여관을 경영하였는데, 손님들이 숙박비 대신 맡긴 물건을 되파는 중개업으로 돈을 많이 번 약삭빠른 상인이었다. 그런데 그는 술과 노름으로 가진 재산을 다 날려 버렸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길에서 사람에게 시비를 일삼았다. 그러던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주일예배에 빠지지 않는 교인이 되었다. 그는 이때부터 귀신에게 드리는 제물을 거부하고, 조상제사를 거부하고 술과 놀음을 끊고 싸움질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과거에 함께 어울려 놀며 나쁜 짓을 하던 친구들이 그를 헐박하여 회유하려 들자, 그는 가족을 데리고 산골 마을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10여명을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하였다.

한 여자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당시의 죄책고백과 윤리적 정화운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 한다 :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지옥의 지봉을 열어젖힌 것이나 다름없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불결과 음욕, 도적, 질투, 부끄러움도 없이 사랑의 힘이 무엇 이든 이런 고백을 강제할 수 없을 터이다. 많은 한국교인들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지고, 그리고 마루에 얼굴을 가렸다.”⁴⁰⁾

영적 대각성운동은 개인적 성화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성화로 결실되었다. 기독교 신앙은 절망에 빠진 한국민족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사회적으로 깨어나게 하였고, 일제에 저항하는 정신이 북돋게 하였다. 기독교는 정의와 투명성 그리고 친애와 공공정신, 타오르는 애국심, 상호결속과 교육을 그 기본으로 삼아 참신하게 부상하고 있었다.⁴¹⁾ 이러한 엄청난 힘

40) 김홍기, “1907 부흥운동의 전개와 그 역사적 교훈, 신앙계, 2007년 1월호, 통권 462호, 43.

41) H. B. Hulbert, Japanese and Missionaries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March 1908, 209.

은 한국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형성 가능한 것이었다.⁴²⁾

일제가 일본에서 아이누족을 멸종시키려한 것처럼, 한국의 멸절을 획책하는 일제에 대항하여 한국 기독교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⁴³⁾ 선교사 엘리스는 1908년 다음과 같이 한국 기독교를 보고하고 있다: “기독교가 한국에서 새 남성 여성을 창조해냈기 때문이다. 새로운 자아상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새 사회의식 그리고 새 애국심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몇 년 전만 하여도 일본의 흉도(凶圖)가 성공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일본은 한국을 타작할만한 그런 힘(기독교가 한국을 변화시킨 것과 같은 힘)이 없다.”⁴⁴⁾ 그리하여 윤리적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교회지도자들과 교인들의 신앙은 사회적으로 영적 권위를 인정받기에 이르렀고, 사회적 지도력(social leadership)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3.1독립선언 등 민족운동이나 독립운동에서 교회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1907년 숭실중학교 학생으로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손정도는 후일에 민족주의적 부흥운동가가 되었다. 그에게는 민족독립과 부흥전도가 하나였다. 한국의 국권회복은 신자들이 오순절 성령감화를 받고 복음을 전하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1907년 영적 대각성운동의 주역인 길선주는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 중에 가담하였다. 길선주의 이러한 독립운동의 참여는 1895년 정치적 박해의 빌미를 피하기 위해 정경분리 정책을 시행한 선교사들의 현실격리 태도⁴⁵⁾와는 다른 것이었다. 17세기 독일 할레(Halle)에

42) 민경배, “1907년 대 부흥운동에 대한 역사적 고찰”, 2006 서울 성령복음화 대회, “성령이 시여, 생명과 평화를 주소서” 2007 포럼, 학술자료집, 29.

43) 상동.

44) W. T. Ellis, Korea : The Unique Mission Field, M. R. W., February 1908, 98.

45) 민경배, “1907년 대 부흥운동에 대한 역사적 고찰”, 2006 서울 성령복음화 대회, “성령이 시여, 생명과 평화를 주소서” 2007 포럼, 학술자료집, 24.

서 일어난 프란케(Hermann Francke)의 경건주의처럼, 인간의 내면적 변화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인 것처럼 1907년의 영적 각성운동은 정치·사회적 변화의 원동력으로 나타났다.

영적 각성운동의 결과로 금연금주, 우상타파, 신분타파, 여권 신장, 배움에 대한 갈망, 학교교육의 증대, 도덕적 향상이 일어났다. 기생과 환락의 도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었고, 제주도, 산동성, 일본, 블라디보스톡에 해외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운동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한국교회는 당시 개화기에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선교사들에 의하여 각종 병원과 기독교학교들이 세워졌다. 이 사학들은 기독교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고취시켜 주었다.⁴⁶⁾ 숭실대학이야말로 민족 사학의 전당이었다.

Ⅶ. 영적인 구국운동 : 비정치화가 아닌 영적 갱신을 통한 구국

1907년은 일제의 강요로 고종황제가 퇴위하고, 한국군대가 해산되어 국가 멸망직전에 이르렀던 때였다. 이 시기에 선교사들과 한국 신자들은 신앙운동, 즉 영적 각성운동으로 민족의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였다.⁴⁷⁾ 이러한 영적 각성운동은 당시의 국권이 상실되어 가는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과 신자들은 역사와 민족의 주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과 슬픔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민족을 다시 살리는 길을 찾은 것이다.

46)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238.

47) 유영렬,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과 숭실대학”, 1907년 평양, 2007년 서울, 학술대회자료집, 2007년 11월 2일, 그리고 “오늘의 교회 속에 ‘평양 대부흥’ 적용방안 모색”, 기독교신문, 2007년 11월 11일, 20면.

이것은 당시 부흥운동의 주역의 하나였던 선교사 블레어(Blair)와 헌트(Hunt)의 글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난다 : “당시 극동은 들끓고 있었다. 민족들을 뒤흔들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던 큰 전쟁들이 짧은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국에서 교회를 안전하게 이끌어 준 것은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와 임재 밖에 없었다.……1906년 8월에, 우리 평양 선교사들은 상황이 심각함을 깨닫고 일주일간 성경공부와 기도를 위해 함께 만났다.…… 매우 진지하게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고민을 털어 놓으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여쭙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장차 일어날 일을 감지하게 해 주셨다. 그 모임이 끝나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상한 심령과 진실한 눈물로써 회개하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⁴⁸⁾

블레어와 헌트의 글은 당시 한국교회의 비정치화 현상을 보여주는 글로 해석⁴⁹⁾할 것이 아니라 당시 한국에 밀어닥친 국가의 위기를 타개하는 길을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의 주권자인 하나님께 의뢰하는 정치에 대한 복음적 태도⁵⁰⁾라고 보아야 한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당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실의와 절망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복음에 수용적이게 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 위기감을 종교적 카타르시스(religious katharsis)로 대체했다는 주장은 평양 영적 각성운동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48) William Blair and Bruce Hunt, *The Korean Pentecost and the Suffering which followed*(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1977), 61-67.

49) 송길섭, *한국교회신학사상사*, 159-160.

50)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의 성격과 의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46, 한국기독교학회, 2006, 290.

1907년 전후의 부흥운동이 한국교회의 비정치화 현상을 초래했다는 해석⁵¹⁾은 사실에 적합하지 않다. 부흥운동에 대한 비정치화 해석은 부흥운동이 한국 개신교를 영적이고 피안적인 것을 지향하게 함으로써 정치와 현실문제로부터 도피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비역사의 식과 민족에 대한 관심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한국 개신교가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정부에 협조하였다는 것이다. 부흥운동이 한국교회를 비역사화, 물민족화했다는 주장은 김영재, 김인수, 박용규가 주장하는 바⁵²⁾ 같이 납득이 될 수 없다. 복음주의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당시 일본의 한국 속국화와 민족의 고난에 결코 무관심한 것이나 외면화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법의 문제였다. 비정치화란 전혀 무관심하고 종교적인 도피와 열광에 빠졌다는 해석이다. 결코 아니다. 복음주의적 신앙을 가진 이들은 이러한 일제에 대하여 민중봉기나 무력 항쟁에 앞장설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의 정치적 현실, 청일전쟁(1894), 러일전쟁(1904), 일본의 속국화 정책(1907), 국권상실(1910) 등의 민족적 위기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은 의지(依支)의 대상으로 교회를 찾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교회에 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이다. 당시 선교사들은 진정한 중생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 당시 민족적 시련과 절망이 교회로 하여금 애국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길을 찾도록 한 것이다. 민족의 시련과 고난이 선교사와 백성과

51) 민경배, 한국기독교교회사,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254-260.

서정민, “초기 한국교회 대부흥운동 이해 : 민족 운동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 종로서적, 1986, 233-283, 유동식, 한국감리교회의 역사, 1, 1884-1992, 서울 : 기독교대한감리회, 1994, 251, 269, 이만열, 한국기독교사 특강, 서울 : 성경읽기사, 1985, 83-84.

52) 김영재, 한국교회사, 서울 :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2, 117-118.

김인수, 한국기독교교회사,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180-181.

박명수, 한국교회부흥운동연구, 서울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35.

신자로 하여금 복음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계기를 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부흥이 인간의 비정치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주도적 역사이며, 그 어려운 민족적 현실을 신앙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영적 각성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회각성과 사회개혁으로 열매를 맺은 것이다.

교회의 구국운동은 남미의 해방신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총칼과 무장하고 체제에 대하여 폭력적 저항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도 당시 로마의 식민지 된 유대의 정치적 해방과 독립 위하여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집합하여 민중봉기운동을 획책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전혀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없는 말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구국운동이요 사실상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하게 되고, 유대민족이 세계적인 무대에 나서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신 것이다.

부흥운동이란 결단코 비정치화를 통한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는 바, 교회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성령이 주체적으로 하는 불가항력적인 영적 운동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비정치화 해석자들(민경배, 유동식, 이만열, 서정민 등)⁵³⁾이 주장하는 바 선교활동을 식민주의 운동으로, 부흥운동을 식민주의에 봉사하는 환각제로 보는 것은 왜곡이다.

이러한 영적 구국운동은 1909-1910년 백만인 구령운동으로, 1919년

53)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254-260, 서정민, “초기 한국교회 대부흥운동 이해 : 민족 운동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 종로서적, 1986, 233-283, 유동식, 한국감리교회의 역사, 1, 1884-1992, 서울 : 기독교대한감리회, 1994, 251, 269, 이만열, 한국기독교사 특강, 서울 : 성경읽기사, 1985, 83-84.

3.1 독립운동으로 이어진다. 3.1운동 선언문낭독에 길선주 목사를 비롯하여 기독교계인사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3.1운동 이후 교회가 가장 탄압을 많이 받는 곳이 되었다. 교회는 민족의 양심과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삼일운동 이후 1920년-1944년 일제의 모진 박해 아래 한국교회는 사회적 참여에서 내면적 경건으로 퇴각하였고, 1930년대는 타계주의적 신앙유형(길선주의 계시록 강해, 이용도의 신비주의)으로 나아갔다. 1938년에는 일제의 신사참배의 강요를 총회가 인정하는 배교와 타협의 태도로 나아갔다. 이것은 1907년에 일어난 성령의 불길이 일제의 강한 박해로 인하여 꺼진 것을 말하는 것이다.

VIII. 진정한 에큐메니칼 운동 : 화해와 평화운동

감리교와 장로교가 연합하는 대한예수교의 출범이 있었다. 원산을 선교지로서 함께 활동을 하였던 캐나다 장로회 매컬리(I. H. McCully), 미국 남장로회 소속 하디 선교사와 하이트(Mary C. White)등은 부흥운동에 힘입어 한국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였다. 원산 선교사들의 연합모임은 1905년 9월 ‘한국 복음주의 연합공의회(Gen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stic Missions in Korea) 결성으로 이어졌다. 이 모임의 결성으로 ‘초교파적’ 연합 기도회와 성경공부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초교파적 부흥운동은 교회일치운동으로 이어졌다. 원산 부흥운동의 열기가 한창 고조되었던 1905년에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한국에서 만큼은 하나의 개신교로 “조선 예수교회”를 조직하자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선교사들이 본국교회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해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한국에 진출한 여러 교파 교회 선교사

들이 ‘대한 복음주의 선교회연합공의회’를 조직하여 성경과 찬송가 등 기독교문서 발행, 병원과 학교 운영 등에 연합과 협력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1906년 서울의 영적 각성운동에서는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서 강단을 교류하였다. 장로교회 목회자가 정동 감리교회에서 설교하고, 감리교회 목회자가 장로교회에서 설교하였다.⁵⁴⁾ 1907년 1월 사경회도 평양시내 네 교회가 연합으로 가진 1월 6일부터 열린 저녁집회에서 첫날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고, 1월 14일과 15일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 것이다.

공동체 의식이 집결되어 개교회는 교단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침례교회는 이미 1906년 대한기독교로 명칭을 정하였다. 장로교회는 1907년 남북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가 연합⁵⁵⁾하여 한국 독노회를 조직하였다.⁵⁶⁾ 이 독노회가 1912년에는 조선예수교장로회가 되었다. 각 선교부는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하여, 그동안 추진해왔던 선교지역 조정(Comity Plan)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남감리교회와 북장로교 선교부의 합의로 강원도 북부의 2/3와 서울 이북의 경기도 지방은 남감리교회가 맡고, 강원도 남부 1/3과 서울의 동쪽과 서쪽은 북장로교회가 맡기로 합의했다.⁵⁷⁾ 1908년에는 남감리교회와 캐나다 장로교회의 합의로 원산 이남 함경도 지방은 남감리교회가 맡고, 기타 함경도 지방은 캐나다 장로교회가 맡고, 서울 이남 충청북도 지방은 북장로교회가, 충청남도는 북감리교회, 전라도는 남장로교회, 경상도 북부는 호주 장로교회, 그 나머지 지역은 북장로교회가 맡기로 합의하였다.

1910년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같이 참여하는 복음주의 선교연합공의

54) F. Moore, “Revival in Seoul”, KMF(1906,4).

55) 민경배, 한국민족교회형성사론, 서울 : 연세대학교출판부, 1974, 61.

56) L.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1832-1910, 387-389.

57) Allen D. Clark, History of the Korean Church,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16, 140-142.

회(The Evangelical Council of the Evangelical Mission)가 서울에서 모였고, 여기서 “백만인의 심령을 그리스도에게로”(A Million Souls for Christ)⁵⁸⁾라는 전도목표를 채택하였다. 승실학당의 창설자요 초대학장 베어드(William Baird)선교사는 이 운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온 교회가 확고한 믿음과 유례없는 열정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전례없이 복음이 전국적으로 전해졌다.…… 개인적으로 나는 모든 것이 알려질 때, 100만인 이상이 100만인 구령의 해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⁵⁹⁾

IX. 맺는말 : 한국교회의 순수한 영적 본질 : 출생순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교회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양적 성장을 이룩한 한국교회의 오늘날 현실에 대하여 양식있는 신앙인들의 성찰은 다음과 같다: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교회,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망한다.” “한국교회, 종교개혁 같은 대변혁이 있지 않고는 가망이 없다.” 이 말들은 양적 팽창 속에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의 영적 안일과 나태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1세기가 지난 오늘날 한국교회의 운영과 사업이 세속적 물량주의, 과시형 업적주의, 당파적 경쟁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냉소적 비판을 받고 있다.

1907년 영적 대각성운동은 교인수 증가나 교세확장을 위한 전도운동이 아니라 이미 믿는 신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삶이 바뀌는 윤리적 결단이 있었다.⁶⁰⁾ 백만 구령운동

58) H. G. Underwood, “The Beginning of the Seoul Campaign”, KMF VII ; 12 (December 1910): 298.

59) William Baird, “Report of an Address to the Presbyterian Mission on the Million Movement”, KMF VII: 6 (June 1910): 310-311.

(1910-1911)은 영적 각성운동(1907) 후에 전개되었다. 1907년의 영적 각성운동은 믿기 시작하는 한국교회의 영성을 깨우고 바른 신앙을 각인하는 운동이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병폐되는 회개와 중생과 성화로 이어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보다는 기복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신앙의 본질로 가르치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의 신학에 문제가 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운동이 아니라 이미 1903년부터 회개와 기도의 준비에 의하여 일어난 영적 각성운동의 결실이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1907년 대부흥의 재현을 바란다면 당시에 있던 것 같이 말씀을 공부하는 사경회, 기도모임,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한 회개운동이 있어야 한다. 과시적인 큰 행사나 세미나나 대형집회는 기념식으로 끝나고, 진정하게 대부흥의 재현을 이룰 수 없다. 그것은 개인기도와 가정예배와 새벽기도회, 특히 사경회를 통한 기도회, 금식기도회, 철야기도회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부흥운동의 길은 누구에게 있기 보다는 각 개인(지도자 그리고 평신도 개인)의 겸허한 회개와 기도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성령의 운동이다. 신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철저히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더 나아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의 허물과 죄악을 내 죄악으로 여기고 가슴치고 통회하는 참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럴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가 정화되는 열매가 나타난다.

이것을 위해서는 당시와 같이 평신도에게 미루지 말고, 교회지도자의 솔선한 수범이 필요하다. 지도자가 먼저 겸손하게 낮아져서 성령의 임재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이 회개운동은 교인들의 회개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단지 종교적 개인의 경건

60) 이장식, 한국교회의 어제와 오늘,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7, 185.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삶의 윤리적 정화 및 열매로 나타나고, 이
 율과 사회를 향한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당시 영적 대각성운동은 민족적 시련과 위기를 놓고, 이 위기가 국가적
 축복의 수단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당시 선교사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민족의 살길을 복음화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영적 대
 각성운동이 한국교회로 하여금 비정치화의 길로 나가게 했다는 것은 설
 득력이 없다.

참고문헌

- 길진경, 『영계(靈溪) 길선주((吉善宙)』, 서울 종로서적, 1980.
- 김영재, 『한국교회사』,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2.
-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_____, 『1907년 대부흥운동』, 교육 교회, 96/5 통권 236호,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
 독교교육연구원.
- 김흥기, 「1907 부흥운동의 전개와 그 역사적 교훈」, 『신앙계』, 통권 462호, 2007년
 1월호.
- _____, 「Again 1907, 한국교회의 갱신과 부흥」, 2006 서울 성령복음화 대회 자료
 집: 주제: Again 1907, 성령이시여, 생명과 평화를 주소서!, 주최: 2007 포럼,
 2006. 1월,
- 로병선, 「강화 사경회정형」, 『신학월보』, 제 5권 2호, 1907.
- 민경배, 「1907년 대 부흥운동에 대한 역사적 고찰」, 2006 서울 성령복음화 대회, “성
 령이시여, 생명과 평화를 주소서” 2007 포럼, 학술자료집.
- _____, 『한국기독교회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 _____, 『한국민족교회형성사론』, 연세대학교출판부, 1974.
- 박명수, 『한국교회부흥운동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 박용규, 『평양대 부흥운동』, 생명의 말씀사, 2000.
- 서정민, 「초기 한국교회대부흥운동 이해: 민족 운동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기

- 독교와 민족운동』, 종로서적, 1986.
- 송길섭, 『한국신학사상사』, 대한기독교서회, 1987.
- 유동식, 『한국감리교회의 역사』1, 1884-1992, 기독교대한감리회, 1994.
- 이만열, 『한국기독교사 특강』, 성경읽기사, 1985.
- _____, 「평양대부흥운동의 성격과 의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46, 한국기독교학회, 2006.
- 이장식, 『한국교회의 어제와 오늘』, 대한기독교서회, 1977.
- 임희국, 「신앙각성운동을 통한 갱신과 부흥, 토착교회의 형성」, 2005년도 제 2회 소망신학포럼, 자료집, 2005년 4월 20일,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 이덕주, 「로버트 하디 선교사와 회개 운동, 한국교회와 회개운동」, 한국복음주의협의회 10월 조찬기도회및 발표회, 강변교회, 자료집, 2006.
- 조은식, 「한국교회의 1907년 대부흥과 1970년대 교회성장 비교」, 『선교신학』, 제12집, vol. 1/ 200.
- 한국기독교사연구회편, 『한국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문사, 1989.
- William. N. Blair, The Korean Pentecost (New York, 1908).
- _____, “The Korea Pentecost and Other Experience”, The Korean Pentecost and The Sufferings Which Followed, The Banner of Truth Trust, Edinburgh, 1977.
- William Blair & Bruce Hunt, The Korean Pentecost and the Sufferings which followed, 김태곤 옮김 한국의 오순절과 그 후의 박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 _____, The Korean Pentecost and the Sufferings,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7.
- Arthur J. Brown, The Mastery of the Far East (New York: Charles Scriber's Sons, 1919).
- Allen D. Clark,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Seoul, Korea: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71).
- Allen D. Clark, History of the Korean Church,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16.
- W. T. Ellis, Korea: The Unique Mission Field, M. R. W.. February 1908.

- W. G. Gram, "The Revival in Songdo", KMF (1906. 4).
- M. C. Harris, Preface: Underwood, The Call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1908.
- R. A. Hardie, "Medical Report", Annual Report of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3.
- _____, "R. A. Hardie's Report," Annual Report of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03.
- J. Hounshell, "Report of Miss Hounshell", Annual Report of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03.
- H. B. Hulbert, Japanese and Missionaries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March 1908.
- W. B. Hunt, "Impression of an Eye Witness", KMF (1907. 3).
- Minute of the Seventh Annual Meeting, Korea Mission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04.
- George T. Ladd, In Korea with Marquis Ito (New York: Charles Scriber's Sons, 1908).
- George S. McCune, Letter to Dr. Braun (Jan,15, 1907).
- _____, "The Holy Spirit in Pyeng Yang" (January 1907).
- George L.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 H. G. Underwood, "The Beginning of the Seoul Campaign", KMF VII; 12 (December 1910).
- Alfred W. Watson, Church Growth in Korea(New York: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1934), 29;